

<KDK 개인전 'p'>

페리저 갤러리에서 5월 9일까지 KDK의 개인전 'p'를 개최한다. 작가는 빌딩, 컨테이너 박스에서 별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의 사물을 특유의 시선으로 포착하고 구성해 대상에 대한 독특한 이미지 경험을 선사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우리 주변에서 매일 마주하는 상품 포장에 사용되는 제품 패키지를 소재로 삼았다. 화면 가득 클로즈업돼 마주한 종이 박스의 이미지는 곧 버려질 일회용품이라는 점이 무색할 만큼 시적이고 따뜻한 공간을 보여준다. 시리즈 제목은 <p>이다. 이전 시리즈들의 제목들이 모두 다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이 <p> 시리즈도 소재로 삼고 있는 'Package', 전시하는 공간의 이름인 'Perigee', 순수함을 뜻하는 'Pure' 등 다양한 의미의 단어들로 증폭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기간: 2015년 3월 12일~5월 9일
장소: 페리저갤러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451-51)
문의: 070-4676-7034



<'육감 六感' 展 2부>

OCI미술관이 신진작가 지원사업인 OCI YOUNG CREATIVES 5주년을 맞아 선정했던 36명 작가들의 새로운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직관력 또는 영감이라 부를 수 있는 '여섯 번째 감각(六感, Sixth Sense)'은 세계에 대한 통렬한 시각, 끈질긴 관찰, 다층적인 경험 등 오감의 다양한 과정과 깊은 무의식의 세계가 결합해 비로소 나타나는 감각의 열매다. 초감각적인 능력과 끈질기기도 깊은 성찰을 통해 36명의 작가들은 우리 사는 삶의 여러 얼굴들을 간파하고 드러낸다. 2부 전시에서는 보다 더 외부 세계에 관한 관심을 아우르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공유한다. '풍경', '집과 공간', '사회'에 관한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작품들을 전시한다.



기간: 2015년 4월 9일~5월 5일
장소: OCI미술관 1~3F
(서울특별시 중로구 수송동 46-15)
문의: 02-734-0440~1

두렵지만 황홀한



<두렵지만 황홀한>

하이트컬렉션의 2015년 첫 번째 전시. 이번 단체전은 지난 2014년 《미래가 끝났을 때》에 이어 젊은 작가들에 초점을 맞춘 두 번째 전시로, 특히 회화를 중심으로 작업하는 젊은 화가 13인(김민호, 박종호, 백경호, 양선정, 유한숙, 장재민, 전현선, 정유선, 정은영, 조송, 최수연, 최정주, 허수영)의 작업을 통해 한국 현대 회화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2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에 이르는 이들 작가들은 여섯 명의 선배 작가들(강석호, 김지원, 노충현, 유근택, 최진욱, 홍승혜)의 추천으로 선정된 후배 작가들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로서의 고민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각자 일상에서 발견한 이야기와 이미지들을 회화라는 매체를 통해 담아낸다.

기간: 2015년 2월 27일~6월 5일 장소: 하이트컬렉션(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14 하이트진로빌딩 B/2F)
문의: 02-3219-0271



써니사이드업(blog.naver.com/sun_nysideup)은 갤러리 투어, 한옥 마을 산책, 원데이 클래스 등 기업 및 기관의 이색적인 문화 교육, 워크샵, 행사 기획 및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 문화벤처기업 써니사이드업

<노벨로 피노티(Novello Finotti) : Buon giorno>

"Buon giorno(안녕하세요)"라는 타이틀대로, 이번 전시는 노벨로 피노티 작가를 한국에 처음 소개하는 대규모 개인전이다. 서울미술관은 이탈리아 현대 조각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아이콘인 노벨로 피노티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노벨로 피노티 작가는 주로 대리석, 청동 등의 재료를 이용해 추상과 구상의 양면성을 지닌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전개했다. 그의 작품을 통해 조각의 시대적인 흐름과 전개·확장되는 양상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한국 현대 조각과의 차별화된 조형언어를 발견하는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기간: 2015년 2월 28일~5월 17일
장소: 서울미술관 전관
(서울특별시 중로구 부암동 201)
문의: 02-395-0100



<코끼리 주름 펼치다 展>

본다는 것과, 느낀다는 것, 사물과 현상의 본질에 대하여 알아간다는 것은 서로 어떠한 관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일까? <코끼리 주름 펼치다> 전시는 코끼리를 통해 "What is Seeing-본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을 추구한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엄정순 작가와 시각장애인들의 서로 다른 접근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 전시는 시작한다. 무수한 선의 생성과 소멸, 그 행위의 반복을 통하여 '존재의 본질', '몸의 본질'을 관념적으로 더듬어가는 작업을 해왔던 엄정순 작가의 작업과는 달리 물리적으로 더듬는 행위를 통해 관념을 시각화해 나가는 시각장애인들의 작업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화하는 눈을 통해 본다는 것의 본질, 존재의 본질이 다가간다.



기간: 2015년 3월 5일~5월 10일
장소: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8)
문의: 02-2124-5268